2021. 5.
Vol.54

NYPi Bluenote
블루노트 통계 Statistics

아동·청소년의 주거환경 인식조사[1)]

김지연 선임연구위원
김승경 선임연구위원

개요

조사목적
▶ 아동 · 청소년이 지각하는 주거환경의 실태를 조사하고, 주거환경이 이들의 발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아동 · 청소년 주거권 보장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

조사대상
▶ 전국 초등학교 4~6학년, 중 · 고등학교 1~3학년 재학생 총 6,000명(최종 5,914명 분석)
– 남자 51.9%, 여자 48.1%, 초등학생 33.4%, 중학생 31.9%, 고등학생 34.7%, 특별/광역시 40.9%, 중소도시 49.1%, 읍 · 면 10.0%
▶ 전국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 총 300명(최종 294명 분석)
– 남자 45.6%, 여자 54.4%, 단기쉼터거주 71.1%, 중장기쉼터거주 28.9%, 초등학생 2%, 중학생 15.3%, 고등학생 40.5%, 고졸 20.7%, 대학 재학 8.8%, 학업중단 10.2%, 무응답 2.4%

조사방법
▶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조사

조사기간
▶ 2020년 6월 ~ 9월

1) 이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도 연구과제 '청소년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: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'의 일부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 비적정 주거 거주 아동·청소년 규모 추정 : 전국 초·중·고교 재학생

■ 본 조사 표본에서 주택이 아닌 건물, 임시구조물 또는 반지하나 옥상(옥탑) 등 구조성능환경이 비적정한 주거 거주 청소년을 전체의 2.2% 수준임(표 1, 그림 1).

- 주택이 아닌 건물(쪽방, 고시원, 상가, 공장, 여관 등), 임시구조물(비닐하우스, 움막, 판잣집, 컨테이너) 등 비주택 거주자는 전체 응답자의 0.3%로, 초 · 중 · 고교 재학생의 약 1.2만 명 규모로 추정
- 단, 비주택 거주 비율은 '18년 인구주택총조사 아동가구의 비주택 거주 비율(0.7%)의 절반 수준, 구조성능환경미달 비율은 '19년 주거실태조사 아동가구의 구조성능환경미달 비율(0.7%) 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, 조사시점과 조사대상 등 표본조사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

표 1 비적정 주거 규모(주택의 종류 및 위치) (단위: %)

구분	적정 (주택 & 지상)	비적정		기타	무응답
		비주택 or 반지하, 옥상	비주택 & 반지하, 옥상		
백분율	94.8	2.2	0.0	0.1	2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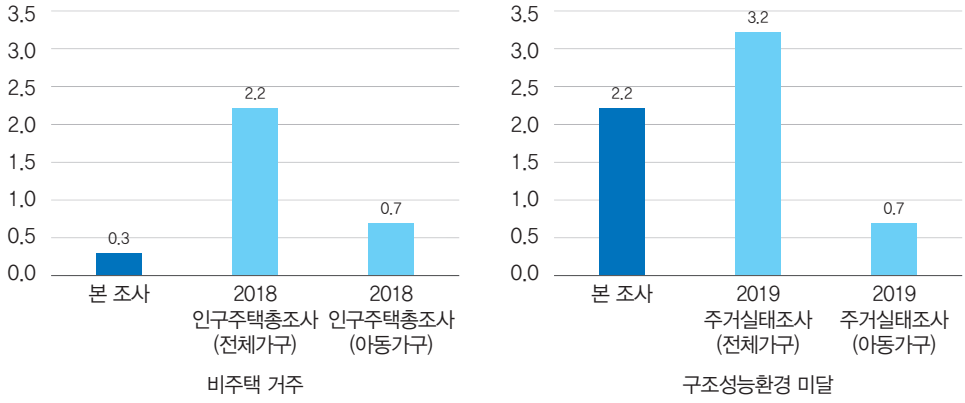


그림 1 비주택 주거 및 구조성능환경 미달 규모

■ 가족구성에 비해 방의 개수가 부족하여 침실 분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24.3%로 전체 응답자의 1/4에 달하였음(표 2, 그림 2).

– 「최저주거기준」에서 용도별 방의 개수는 ① 부부는 동일 침실 사용, ②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, ③ 만8세 이상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, ④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의 기준을 적용함.

※ 본 조사에서는 세대 및 성별 분리 원칙에 따라 조부모세대, 부모세대, 동성형제자매, 이성형제자매, 기타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가족구성에 따른 방 개수가 적정한지 검토

– 조사대상자 중 '내 방이 없다'는 응답은 22.0%로, 방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은 동성의 형제자매가 63.2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어머니(25.9%), 아버지(16.3%), 이성 형제자매(16.6%) 순임.

– 이성 형제자매와 방을 공유한다고 응답한 경우 '만8세 이상'이 과반을 초과(63.2%)하였는데 이는 전체 응답자의 약 2.3%로, 모집단인 초 · 중 · 고교 재학생 중 연령 · 성별을 고려한 방 분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약 9.3만 명 규모로 추정

표 2 8세 이상 이성 형제자매와 방 공유 여부 (단위: %)

항목	내 방 있음	내 방 없음	무응답
내방이 있는지 여부 (백분율)	77.1	22.0	0.9

항목	아버지	어머니	동성 형제자매	이성 형제자매	기타
방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 (백분율)	16.3	25.9	63.2	16.6	4.7

항목	만 8세 이상	만 8세 미만	무응답
함께 방을 사용하는 이성 형제자매의 나이 (백분율)	63.2	33.9	2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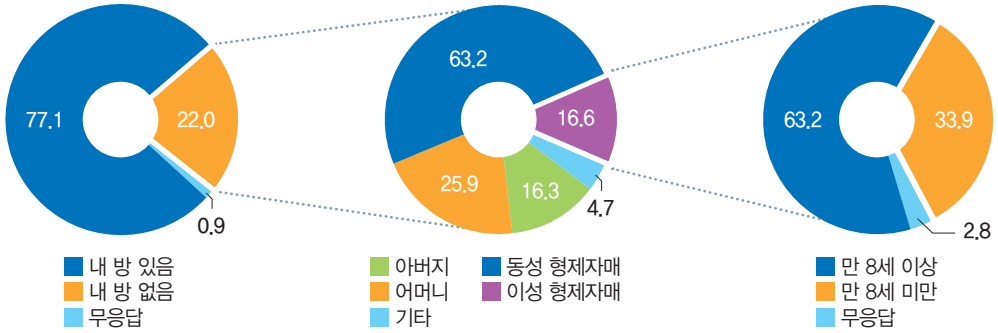


그림 2 이성 형제자매와 방 공유 여부

■ 수도시설을 제외한 집 내부의 필수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전체의 3.1%, 비적정주거 상태에 있는 응답자의 12.4% 수준임(표 3, 그림 3).

– 「최저주거기준」에서 필수설비는 '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,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'로 규정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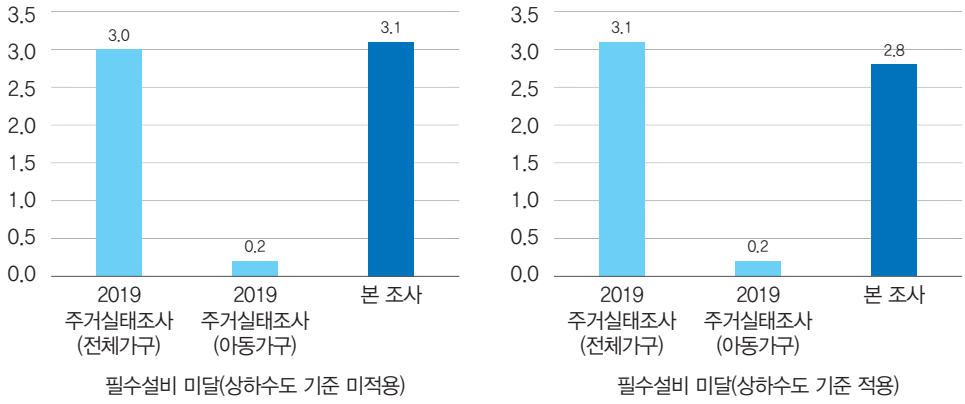
– 상하수도시설을 포함한 집 내부 필수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응답은 2.8%로 모집단인 중 · 고등학생 대비 약 7.5만 명 규모로 추정

※ 본 조사에서 상 · 하수도시설 설치 여부는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 · 고등학생만 조사하였고 집 내부 필수설비는 전용입식부엌, 전용수세식화장실, 목욕시설 설치 여부를 기준으로 산출

– 단, 필수설비미달 규모는 '19년 주거실태조사 전체가구 대비 비율(3.0%)과 유사하고 아동가구(0.2%) 대비 약 15배 높아 이 역시 조사시점과 조사대상 등 표본조사의 특성에 대한 고려 필요

표 3 필수설비기준 미달 규모 (단위: %)

구분		전용입식부엌,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			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 포함 전용입식부엌,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		
		모두 있음	없음	무응답	모두 있음	없음	무응답
전체	백분율	89.8	3.1	7.1	85.6	2.8	11.5
비적정주거	백분율	71.2	12.4	16.3	65.5	12.3	22.2



* 주1: 전용부엌, 입식부엌(싱크대), 전용화장실, 수세식양변기, 욕조나 샤워기(또는 온수) 설치 여부로 산출
주2: 상 · 하수도 시설 설치 여부는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 · 고등학생만 조사

그림 3 필수설비기준 미달 규모 비교 (단위: %)

- 주택의 종류나 위치가 비적정한 경우, 이로 인해 '학업에 방해가 됨', '친구를 집에 데려오기 창피함', '가족과 다툼이 잦음' 항목의 응답률이 적정주거 상태에 있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(그림 4).
  - 특히 비적정주거 상태에 있는 경우 '친구를 집에 데려오기 창피하다'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았음(χ^2=10.447, p<.01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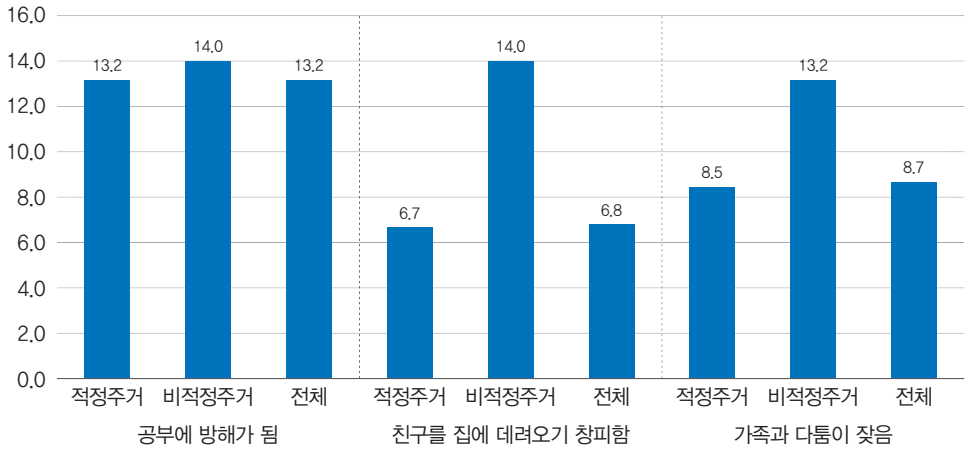


그림 4 집 구조나 환경으로 인한 생각이나 행동 (단위: %)

- 주택의 종류나 위치가 비적정한 경우,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13개 평가 항목 중 (주택 내 · 외부)소음 문제를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고, 그 다음은 집 내부 곰팡이, 해충, 화재시설미비 등의 순임(그림 5).
  - 바깥소음(자동차 경적, 고함소리 등)이 차단되지 않음(29.2%), 옆집이나 층간의 소음이 심하게 들림(19.4%), 집 안에 곰팡이가 핀 곳이 있음(17.4%), 집 안에 쥐나 개미, 바퀴벌레 등 해충이 있음(13.8%), 화재에 대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(12.2%), 우리집 주변은 소방차가 출동하면 드나들기 어려움(8.2%), 모르는 사람이 침입하기 쉬운 구조임(5.4%), 화재가 나면 위험한 재질로 지어짐(4.9%),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음(3.1%), 냉난방이 잘 되지 않아 여름철에 덥고 겨울철에 추움/집 안에 악취(이상하고 심한 냄새)가 남/비가 오면 찬장이나 벽에 물이 새거나 잠김(각 2.5%),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어두움(2.3%),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답답함(1.7%), 지붕 · 벽이 무너질 위험이 있음(0.6%)의 순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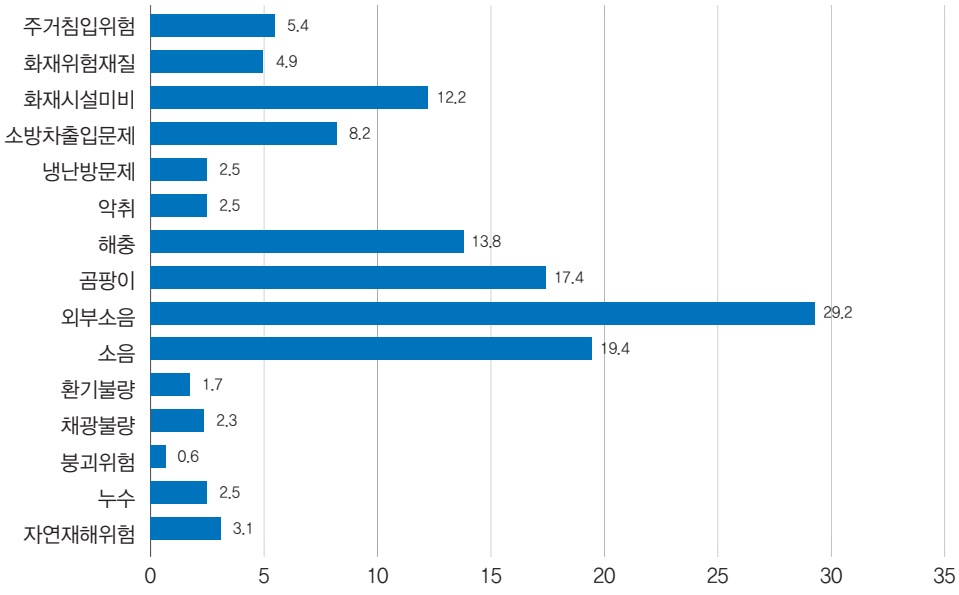


그림 5 집의 전반적인 상태 평가 (단위: %)

2 아동·청소년의 주거환경 및 영향 비교 : 초·중·고교 재학생 및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[2)]

- 주택의 종류나 위치가 비적정한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, '최근 1년 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고충', '이사 결정 시 의견 존중', '학대 · 방임' 관련 경험이 유의미하게 취약하고 차별 경험도 높았음.
  - 비적정주거환경 거주 청소년들의 최근 1년 간 '주거비를 걱정한 적 있음' 응답률은 18.5%로 적정주거환경 아동 · 청소년 대비 약 3배에 달하고, '병원비 부담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한 적 있음' 2.3%, '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 있음' 3.1% 수준임(표 4).

2) 초 · 중 · 고교 재학생을 주택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적정주거집단(94.8%)과 비적정주거집단(2.2%)으로 구분하고 청소년쉼터거주집단(4.9%)을 추가하여 재분석한 결과임(세 집단 합계 100% 기준).

표 4 최근 1년 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경험 (단위: %)

항목	구분	있음	없음	모름	χ^2
병원비 부담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음	적정주거	0.6	95.8	3.6	11.638**
	비적정주거	2.3	90.0	7.7	
	전체	0.7	95.7	3.7	
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음	적정주거	2.2	85.2	12.7	8.221*
	비적정주거	3.1	76.2	20.8	
	전체	2.2	85.0	12.8	
주거비를 걱정한 적이 있음	적정주거	6.9	77.1	15.9	27.173***
	비적정주거	18.5	63.1	18.5	
	전체	7.2	76.8	16.0	

* 주: p<.10, *p<.05, **p<.01, ***p<.001

– 지금까지 이사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, '부모님(보호자)이 이사 갈 지역(또는 집)을 결정할 때 내 의견을 존중하였다' 항목의 긍정응답률(매우 포함)은 비적정주거환경 아동 · 청소년이 64.4%로, 적정주거환경 아동 · 청소년(78.4%) 보다 14%p가 낮아 주거 결정 시 참여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(표 5).

표 5 이사 결정 시 나의 의견 존중 여부 (단위: %)

구분	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은 편이다	그런 편이다	매우 그렇다	χ^2
적정주거	6.4	15.3	47.5	30.9	12.113**
비적정주거	10.6	25.0	35.6	28.8	
전체	6.5	15.5	47.2	30.8	

* 주: p<.10, *p<.05, **p<.01, ***p<.001

– 집의 위치로 인한 차별 경험은 전체의 0.3% 수준인데 반해, 반지하/지하에 거주하는 경우 차별 경험이 4.8%에 달하였음(표 6).

표 6 집의 위치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 (단위: %)

구분	예	아니오	χ^2
지상	0.3	99.7	43.331***
반지하/지하	4.8	95.2	
옥상/옥탑	0.0	100.0	
전체	0.3	99.7	

* 주: p<.10, *p<.05, **p<.01, ***p<.001

– '최근 1년 간 부모 · 가족으로부터의 학대 · 방임 경험'도 비적정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응답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비적정주거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시사함(표 7).

표 7 부모와 가족으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: 최근 1년간 (단위: %)

항목	구분	없음	1년 1~2회	2~3개월 1~2회	한 달 1~2회	1주일 1회 이상	χ^2
혼자 두면 안되는 경우에도 혼자 있게 함	적정주거	94.9	2.9	0.5	0.6	1.1	15.985**
	비적정주거	87.4	5.7	1.1	3.4	2.3	
	전체	94.8	3.0	0.5	0.6	1.1	
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않음	적정주거	93.2	2.5	1.0	1.7	1.6	16.612**
	비적정주거	87.1	4.3	5.4	1.1	2.2	
	전체	93.0	2.6	1.2	1.6	1.6	
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음	적정주거	97.8	1.5	0.5	0.1	0.2	20.786***
	비적정주거	93.2	3.4	2.3	1.1	0.0	
	전체	97.7	1.5	0.5	0.1	0.2	
지저분하거나 위험한 환경을 개선해주지 않음	적정주거	98.6	0.8	0.3	0.1	0.2	27.825***
	비적정주거	94.4	3.3	0.0	2.2	0.0	
	전체	98.5	0.8	0.3	0.2	0.2	
서로 큰소리로 위협하고 신체적 폭력을 가함	적정주거	92.7	4.9	1.4	0.6	0.3	10.081*
	비적정주거	90.3	4.3	1.1	3.2	1.1	
	전체	92.7	4.9	1.4	0.7	0.4	

* 주: *p(.05, **p(.01, ***p(.001

■ 비적정주거 또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적정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 · 청소년에 비해 우울 · 불안은 높고 자아존중감은 낮으며, 주거환경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심리 · 정서 · 발달 전반에서 차이가 확인됨(그림 6).

– **심리 · 정서** 적정주거환경의 아동 · 청소년은 비적정주거 및 시설거주 아동 · 청소년에 비해 우울 · 불안은 낮고(χ^2=111.560, p(.001) 자아존중감은 가장 높았음(χ^2=61.092, p(.001). 시설거주 아동 · 청소년은 세 집단 중 심리 · 정서 측면에서 가장 취약하였음(그림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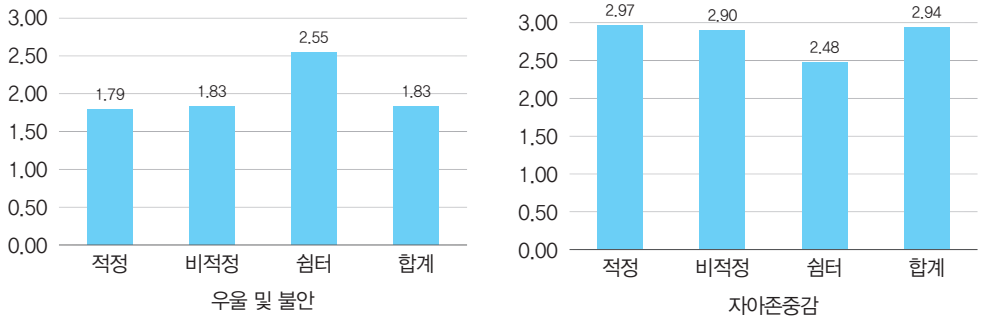


그림 6 주거환경과 심리 · 정서 특성 비교 (단위: 점)

– **정상체중** 비적정주거환경의 아동 · 청소년은 세 집단 중 정상체중(BMI) 범위에 있는 비율이 가장 낮고 저체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, 쉼터거주 아동 · 청소년은 과체중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(표 8).

표 8 주거환경과 정상체중 비율 (단위: %)

구분	저체중	정상체중	과체중	χ^2
적정주거	26.9	50.0	23.1	81.821***
비적정주거	32.7	38.9	28.3	
쉼터거주	12.0	43.8	44.2	
합계	26.3	49.5	24.2	

* 주: † p<.10, *p<.05, **p<.01, ***p<.001
* 주: BMI=몸무게(kg)/키(m2), 저체중은 18.5미만, 평균체중은 18.5~23, 과체중은 23이상으로 구분함.

– **수면 · 숙면** 전체 응답자 가운데 '충분히 못 잠' 응답률은 30.2%에 달하였는데, 쉼터거주 아동 · 청소년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(표 9). 특히 '집 구조나 소음으로 수면 방해 경험이 있다'는 경우가 전체의 40.8%에 달하였는데 비적정주거 아동 · 청소년은 과반 이상(50.9%), 쉼터거주 아동 · 청소년은 75.8%에 달하여 수면권 보장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함(표 10).

표 9 주거환경과 숙면 여부 (단위: %)

구분	충분히 잠	충분히 못잠	χ^2
적정주거	70.6	29.4	25.845***
비적정주거	60.6	39.4	
쉼터거주	58.1	41.9	
합계	69.8	30.2	

* 주: ***p<.001

표 10 집 구조나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비율 (단위: %)

구분	없음	있음				χ^2
			가끔 있음	자주 있음	항상 있음	
적정주거	62.1	37.9	30.0	6.0	1.8	88.938***
비적정주거	49.1	50.9	39.6	5.7	5.7	
쉼터거주	24.2	75.8	50.0	16.7	9.2	
합계	59.2	40.8	31.6	6.7	2.4	

* 주: ***p<.001

– **방과후활동** 주거환경에 따라 방과 후 활동 내용과 할애하는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적정주거환경 아동 · 청소년은 집에서 숙제나 책을 읽는 활동, 쉼터거주 아동 · 청소년은 스마트폰, TV, 컴퓨터 이용, 비적정주거환경 아동 · 청소년은 집에 머물기보다 야외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음(표 11).

표 11 집 구조나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비율 (단위: 시간)

항목	구분	평균	표준편차	F	비고
숙제나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	적정주거	3.27	2.59	20.427***	적정>쉼터, 비적정
	비적정주거	2.33	2.12		
	쉼터거주	2.43	3.27		
	합계	3.21	2.63		
스마트폰, TV, 컴퓨터 이용 시간	적정주거	3.59	2.45	97.027***	쉼터>비적정, 적정
	비적정주거	4.02	3.19		
	쉼터거주	5.74	4.22		
	합계	3.70	2.62		
운동이나 야외에서의 신체활동 시간	적정주거	1.45	1.46	4.944**	비적정, 적정>쉼터
	비적정주거	1.59	1.26		
	쉼터거주	1.18	1.58		
	합계	1.44	1.46		

* 주: **p<.01, ***p<.001

– **진로성숙도** 주거환경에 따라 진로성숙 정도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, 쉼터거주 아동 · 청소년은 '인생목표와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와 태도' 가 가장 취약하였음(표 12).

표 12 주거환경과 진로성숙도 (단위: 점, 4점 만점)

구분	평균	표준편차	F	비고
적정주거	3.12	0.66	8.870***	적정, 비적정>쉼터
비적정주거	3.08	0.62		
쉼터거주	2.95	0.73		
합계	3.11	0.67		

* 주: ***p<.001

– **학교생활 만족도** 적정주거환경의 아동 · 청소년이 세 집단 중 상대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고, 쉼터거주 아동 · 청소년이 가장 낮았음(표 13).

표 13 주거환경과 학교생활 만족도 (단위: 점, 10점 만점)

구분	구분	평균	표준편차	F	비고
학교생활 만족도	적정주거	7.52	2.099	95.177***	적정, 비적정>쉼터
	비적정주거	7.41	2.171		
	쉼터거주	5.66	2.721		
	합계	7.41	2.178		

* 주: p<.10, *p<.05, **p<.01, ***p<.001

– **아동 · 청소년의 권리 보장정도 평가** 일상생활에서 나의 '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', '보호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', '교육 · 여가 · 문화 ·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권리', '국가 · 지역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'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평가한 결과, 적정주거환경의 아동 · 청소년의 평가가 세 집단 중 가장 긍정적이고, 쉼터거주 아동청소년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나 주거환경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(표 14).

표 14 주거환경과 아동 · 청소년 권리 보장정도 평가 (단위: 점, 4점 만점)

구분	평균	표준편차	F	비고
적정주거	3.73	0.46	79.307***	적정, 비적정>쉼터
비적정주거	3.50	0.71		
쉼터거주	3.41	0.59		
합계	3.71	0.48		

* 주: p<.10, *p<.05, **p<.01, ***p<.001

* 주: 총 4가지 영역의 총점으로 산출(4점 리커트 척도)

– **쉼터거주 청소년 가정 밖 생활기간** 현재 거주하는 청소년쉼터 입소 전 주거 경험을 보면, 다른 쉼터(33.3%)가 가장 많고 친구 집(26.2%), 자취(20.4%), 숙박시설(19%), 노숙(17%), 기타(13.9%), 그룹홈 · 양육시설(17.7%), 노숙인시설(9.9%) 등 주거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확인됨. 본 조사표본에서 쉼터 입소 전 가정 밖 생활기간은 평균 35개월에 달하여,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통한 시설의 입 · 퇴소 반복을 최소화하는 접근이 필요함(표 15, 표 16).

표 15 청소년쉼터 입소 전 거주 장소와 기간 (단위: %, 개월)

구분	노숙	숙박 시설	친구집	청소년쉼터	그룹홈, 양육 시설	노숙인시설	자취	기타
백분율(%)	17.0	19.0	26.2	33.3	17.7	9.9	20.4	13.9
평균(개월)	1.2	1.1	2.0	8.8	28.8	0.0	5.7	4.3
표준편차	1.7	2.0	2.7	11.1	57.4	0.2	14.1	11.9
최소값	0.0	0.0	0.0	0.0	0.0	0.0	0.0	0.0
최대값	8.0	12.0	14.0	48.0	240.0	1.0	96.0	72.0

표 16 청소년쉼터 입소 전 가정 밖 생활기간 (단위: 개월)

구분	평균	최대	최소	편차
단기쉼터	36.31	248	0	49.78
중장기쉼터	32.28	108	2	23.30
전체	35.00	248	0	42.92